

이슈페이퍼

---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주희정

이슈페이퍼 2017-08

이슈페이퍼

---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주희정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주희정)

### 〈목 차〉

I. 배경 및 문제점 .....	2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5
III. 정책 제언 .....	18
IV. 기대효과 .....	22
참고문헌 .....	23
[부록] .....	24

본 연구는 2017년 1학기 3월, 1학기말 7월 그리고 2학기말 12월 3개 시점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중학생의 진로성숙, 학습태도 및 학교생활, 행복도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연구의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자유학기제 전후의 학생 발달 사항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관찰하고, 진로체험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중학교 1학년 1년간의 학생 발달 변화 궤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자유학기·학년제 시행 시기별 학생 발달의 주안점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학교 적응 → 개인별 진로계획 수립 → 학업으로의 순차적인 발달 및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자유학기·학년제를 통한 스스로 학습을 정착시키고, 만족스러운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 발달을 촉진하는 한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관해 정책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학생 발달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E-mail: gloriachu@krivet.re.kr)

\* 이 연구는 김민석 연구조원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였음.

## I. 배경 및 문제점

최근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취업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통은 아니다. 청년실업과 NEET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개입을 늘리며 진로교육 강화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OECD, 2010).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정책 대응과 궤를 같이 하여 2015년 6월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체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진로검사, 진로정보,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생 누구나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살려 행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진로교육법」 제1조, 제2조). 동 법에서는 진로체험을 진로교육의 주요한 추진 방향으로 상정하고, 진로체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법인·기관·단체 등의 진로체험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부 장관은 진로체험기관을 인증하여 진로체험의 질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진로교육법」 제12조, 제18조, 제19조).

법 시행과 더불어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 활동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을 통해 학생의 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고, 선발과 줄세우기식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꿈길, 2017).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 중 최소 1학기만큼은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어 고교 진학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철용성 같았던 입시 중심의 교육 틀을 뒤흔든 진로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는 지난 50여 년간 시행된 다양한 교육 정책 중 가장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교육 혁신의 집행, 확산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혁신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찾기란 쉽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진로 체험과 관련된 논의는 더욱 그러하다. 진로체험이 학생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단기간의 가시적인 산출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개인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이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다. 또, 진로체험 활동은 개개인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변화까지도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추적, 관찰하여야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장기 추적 연구의 제약을 극복한 일부 연구에서는 진로체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NELS)’ 자료를 활용하여 Staff et al.(2010)는 16세에 직업 포부가 불확실한 집단은 전문직 혹은 비전문직 포부를 가진 집단에 비해 초기 청년기인 26세에 시간당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분석하면서 청소년기의 진로 모호성은 장기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Schoon & Polek(2011)는 영국의 ‘the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1958’과 ‘British Cohort Study(BCS) 1970’ 두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16세 때 전문직 혹은 관리직 진출의 진로포부를 가진 청소년(teenager)이 33~34세 성인이 되었을 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욱 성공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BCS 자료를 활용하여 Yates et al.(2011)는 학업성취도, 사회적 가구 배경 등을 통제한 후, 16세 때의 진로포부가 불명확한 청소년은 19세 성인이 되었을 때 비교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진로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장기 추적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진로체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김기현·유홍준·오병돈, 2014; 김영식·이기정, 2016). 그러나 패널 연구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체험의 효과 측정을 위한 도구의 제약이 크고, 자유학기제 시범 사업 단계에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이후 진로체험활동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의 효과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2017년 1년 동안의 학생 발달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주휘정 외, 2017). 주휘정 외(2017)의 연구는 2017년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미

시행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고, 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진로체험 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연구수행 기간의 제약으로 2017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를 실험집단으로, 2학기에 시행한 학교를 통제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80% 이상의 학교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주희정 외(2017)이 가진 연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2017년 2학기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참여 및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2017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진로성숙, 학습태도 및 학교생활, 행복의 변화에 관한 1년 치 자료를 수집하였고, 1, 2학기에 걸쳐 학생발달 변화 궤적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다. 수집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학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효과를 분석한 주휘정 외(2017)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행한 것으로, 기존 연구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주휘정 외(2017)에서는 2017년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305개교(서울 23개교, 부산 19개교, 경기 248개교, 전북 9개교, 경남 6개교) 중 100개교, 미시행 학교(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100개교를 표집하였다.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의 대다수인 경기 지역 248개교 중, 학교규모별(학급 수), 설립별(공/사립) 층화임의추출한 43개교와 나머지 서울, 부산, 전북, 경남 57개교, 총 100개 교를 1학기 시행 집단으로 선정하고, 자유학기제 미시행(2학기 시행) 집단은 1학기 시행 집단과 동일 지역의 학교 동수를 학교규모별, 설립별로 층화임의추출하였으며, 학교별로 학급 수가 다른 것을 고려해 선정된 학교의 1학년 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주휘정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주휘정 외(2017)의 연구에서 사전/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2,858명(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 1,360명, 미시행(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 1,498명)을 대상으로, 앞선 연구의 사전/사후 조사에 이은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조사의 대상인 사전/사후 조사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표 2-1〉 조사 대상

(단위: 명)

지역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서울	242	282
부산	269	257
경기	659	702
전북	97	129
경남	93	128
합계	1,360	1,498

## 2. 조사 기간 및 방법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자유학기 시행 전인 2017년 1학기 초에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1학기 말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조사는 자유학기 2학기 시행 집단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경험한 이후인 2017년 2학기 말에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17. 3. 15.(수) ~ 24.(금) 10일간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2017. 7. 10.(월) ~ 21.(금) 12일간 실시하였으며, 3차 조사는 2017. 12. 1.(금) ~ 15.(금) 15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설문조사 실시 전 조사를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http://free.surveys.kr>). 이후 대상 학교별 공문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PC나 모바일 기기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도구는 다음과 같다. 주휘정 외(2017)의 학업 관련 변수 중 학업역량은 ‘매우 못함~매우 잘함’의 5점 척도, 교육포부는 ‘고졸/전문대졸/4년제대졸/석사/박사’의 5점 척도, 스스로 학습량과 사교육 학습량은 ‘전혀 없음/1시간 미만/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시간 이상 3시간 미만/3시간 이상’의 5점 척도, 학업·진로지도 만족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 그 외 이규미(2005)의 학교생활(상호협조성, 생활만족, 학업가치), 한국방정환재단(2016)의 행복도, 김경주(2010)의 진로포부 관련 문항, 커리어넷(2017a)의 진로성숙도검사<sup>2)</sup> 문항(자기이해, 정보탐색, 직업에 대한 태도, 진로 계획성, 합리적 의사결정)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조사 결과,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1차~3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학생은 1,469명으로 나타났다.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학생 752명,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학생 717명으로,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에 따른 집단별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 관련 변수의 측정 결과,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학업역량은 1차 조사

---

2) 커리어넷 진로성숙도검사는 임언·정윤경·상경아(2001)의 연구를 기초로 운영됨.

3.53점에서 3차 조사 3.56점으로 변화하였고, 스스로 학습량은 1차 조사 3.03점에서 3차 조사 3.26점으로 변화하였다.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학업역량은 1차 조사 3.50점에서 3차 조사 3.62점으로 변화하였고, 스스로 학습량은 1차 조사 3.09점에서 3차 조사 3.24점으로 변화하였다. 학업·진로지도 만족도의 경우 1학기 시행 학생들은 3.71점, 3.88점, 3.91점으로 향상되었고, 2학기 시행 학생들은 3.66점, 3.77점, 3.81점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학업 관련 변수 기술통계 결과

구분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학업역량	1차	752	3.53	0.94	717	3.50	0.96
	2차	752	3.53	1.01	717	3.44	1.06
	3차	752	3.56	1.04	717	3.62	1.02
교육포부	1차	752	2.89	1.07	717	2.90	1.08
	2차	752	2.82	1.06	717	2.88	1.09
	3차	752	2.73	1.02	717	2.82	1.08
스스로 학습량	1차	752	3.03	1.22	717	3.09	1.15
	2차	752	3.13	1.21	717	3.18	1.20
	3차	752	3.26	1.25	717	3.24	1.27
사교육 학습량	1차	752	3.23	1.54	717	3.41	1.47
	2차	752	3.32	1.55	717	3.41	1.50
	3차	752	3.27	1.56	717	3.46	1.51
학업·진로지도 만족도	1차	752	3.71	0.73	717	3.66	0.73
	2차	752	3.88	0.78	717	3.77	0.76
	3차	752	3.91	0.81	717	3.81	0.85

학교생활 및 행복도 관련 변수의 측정 결과,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상호협조성은 1차 조사 4.12점에서 3차 조사 4.26점으로 변화하였고, 학교생활만족은 1차 조사 4.13점에서 3차 조사 4.14점으로 변화하였다.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상호협조성은 1차 조사 4.12점에서 3차 조사 4.19점으로 변화하였고, 학교생활만족은 1차 조사 4.04점에서 3차 조사 4.05점으로 변화하였다. 행복도의 경우 1학기 시행 학생들은 3.78점, 3.81점, 3.77점으로 변화하였고, 2학기 시행 학생들은 3번의 조사에서 3.74점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학교생활 및 행복도 관련 변수 기술통계 결과

구분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상호협조성	1차	752	4.12	0.64	717	4.12	0.63
	2차	752	4.23	0.63	717	4.16	0.63
	3차	752	4.26	0.65	717	4.19	0.68
학교생활만족	1차	752	4.13	0.69	717	4.04	0.71
	2차	752	4.17	0.74	717	4.09	0.70
	3차	752	4.14	0.75	717	4.05	0.76
학업가치	1차	752	4.06	0.68	717	4.03	0.72
	2차	752	4.04	0.76	717	3.99	0.76
	3차	752	4.01	0.79	717	3.97	0.81
행복도	1차	752	3.78	0.51	717	3.74	0.51
	2차	752	3.81	0.56	717	3.74	0.54
	3차	752	3.77	0.62	717	3.74	0.59

진로성숙 관련 변수의 측정 결과,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진로포부는 1차 조사 3.74점에서 3차 조사 3.72점으로 변화하였고, 정보 탐색은 1차 조사 3.74점에서 3차 조사 3.83점으로 변화하였다.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진로포부는 1차 조사 3.67점에서 3차 조사 3.71점으로 변화하였고, 정보 탐색은 1차 조사 3.71점에서 3차 조사 3.80점으로 변화하였다. 진로계획성의 경우 1학기 시행 학생들은 3.98점, 4.09점, 4.05점으로 변화하였고, 2학기 시행 학생들은 3.96점, 3.97점, 4.01점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진로성숙 관련 변수 기술통계 결과

구분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진로포부	1차	752	3.74	0.69	717	3.67	0.67
	2차	752	3.77	0.68	717	3.72	0.67
	3차	752	3.72	0.76	717	3.71	0.78
자기이해	1차	752	4.08	0.62	717	4.06	0.65
	2차	752	4.16	0.63	717	4.08	0.65
	3차	752	4.06	0.70	717	4.02	0.67
정보 탐색	1차	752	3.74	0.75	717	3.71	0.71
	2차	752	3.92	0.72	717	3.81	0.74
	3차	752	3.83	0.80	717	3.80	0.79
직업에 대한 태도	1차	752	4.40	0.60	717	4.36	0.61
	2차	752	4.46	0.57	717	4.40	0.59
	3차	752	4.46	0.63	717	4.38	0.67
진로계획성	1차	752	3.98	0.66	717	3.96	0.65
	2차	752	4.09	0.65	717	3.97	0.65
	3차	752	4.05	0.72	717	4.01	0.69
합리적 의사결정	1차	752	3.99	0.66	717	3.98	0.66
	2차	752	4.12	0.67	717	4.05	0.63
	3차	752	4.09	0.73	717	4.04	0.70

## 2) 사전/사후 차이 분석

자유학기제 시행 전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변화량,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는 2차 조사와 3차 조사 간의 변화량을 자유학기제 시행 전후 변화량으로 보고 차이를 분석하였다. 학업 관련 변수의 분석 결과,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량, 사교육 학습량, 학업·진로지도 만족도가 자유학기제 시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경우, 학업역량이 자유학기제 시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포부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학업 관련 변수 차이 분석

구분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역량	사전	3.53	0.94	0.00	3.44	1.06	4.80***
	사후	3.53	1.01		3.62	1.02	
교육 포부	사전	2.89	1.07	-1.80	2.88	1.09	-2.00*
	사후	2.82	1.06		2.82	1.08	
스스로 학습량	사전	3.03	1.22	2.30*	3.18	1.20	1.34
	사후	3.13	1.21		3.24	1.27	
사교육 학습량	사전	3.23	1.54	2.09*	3.41	1.50	1.25
	사후	3.32	1.55		3.46	1.51	
학업·진로지도 만족도	사전	3.71	0.73	5.82***	3.77	0.76	1.16
	사후	3.88	0.78		3.81	0.85	

학교생활 및 행복도 변수의 분석 결과,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에게서 상호협조성이 자유학기제 시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생활만족, 학업가치 및 행복도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 전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6〉 학교생활 및 행복도 관련 변수 차이 분석

구분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상호협조성	사전	4.12	0.64	5.19***	4.16	0.63	1.48
	사후	4.23	0.63		4.19	0.68	
학교생활만족	사전	4.13	0.69	1.57	4.09	0.70	-1.24
	사후	4.17	0.74		4.05	0.76	
학업가치	사전	4.06	0.68	-0.71	3.99	0.76	-0.59
	사후	4.04	0.76		3.97	0.81	
행복도	사전	3.78	0.51	1.58	3.74	0.54	0.08
	사후	3.81	0.56		3.74	0.59	

진로성숙 관련 변수의 분석 결과,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자기이해, 정보 탐색, 직업에 대한 태도, 진로계획성, 합리적 의사결정이 자유학기제 시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생들의 경우, 자기이해가 자유학기제 시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2-7〉 진로성숙 관련 변수 차이 분석

구분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진로포부	사전	3.74	0.69	1.48	3.72	0.67	-0.35
	사후	3.77	0.68		3.71	0.78	
자기이해	사전	4.08	0.62	4.22***	4.08	0.65	-2.56*
	사후	4.16	0.63		4.02	0.67	
정보 탐색	사전	3.74	0.75	6.80***	3.81	0.74	-0.59
	사후	3.92	0.72		3.80	0.79	
직업에 대한 태도	사전	4.40	0.60	2.60**	4.40	0.59	-0.94
	사후	4.46	0.57		4.38	0.67	
진로계획성	사전	3.98	0.66	5.10***	3.97	0.65	1.52
	사후	4.09	0.65		4.01	0.69	
합리적 의사결정	사전	3.99	0.66	5.96***	4.05	0.63	-0.51
	사후	4.12	0.67		4.04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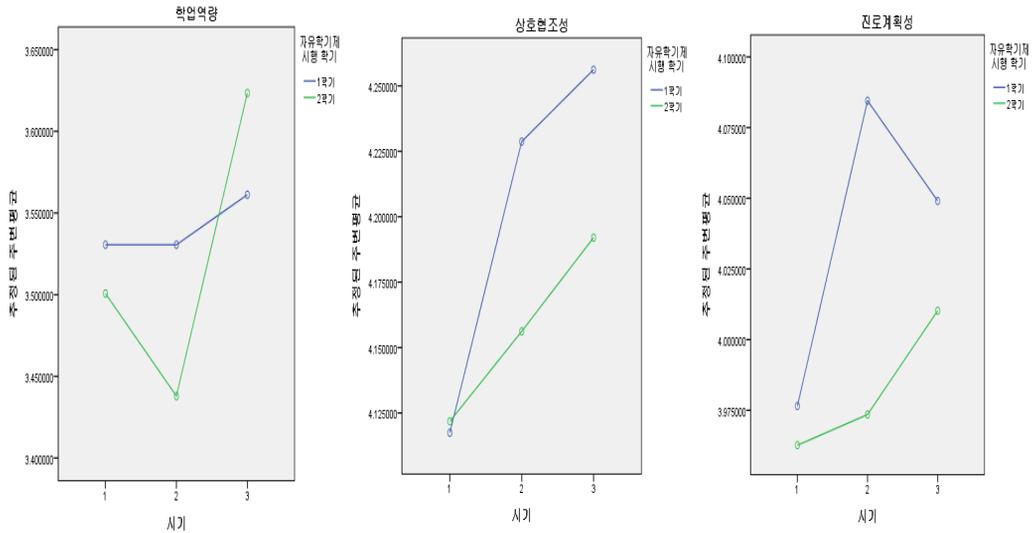
### 3) 종단적 차이 분석

다음으로 동일 학생이 3회에 걸쳐 응답한 응답 값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표 2-7>에서 시기는 1차~3차까지의 측정 시기를 말하고, 시기×시행 학기는 측정 시기와 자유학기제 시행 학기 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스스로 학습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아 다변량 검정(Wilks's lambda) 값을 확인하였고, 스스로 학습량 변수는 개체 내, 개체 간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 학습량과 행복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측정 시기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F	p	Mauchly의 구형성 검정		
			$\chi^2$	p	
학업역량	시기	8.499	.000	12.433	.002
	시기×시행 학기	4.265	.014		
교육포부	시기	6.900	.001	6.424	.040
	시기×시행 학기	0.960	.383		
스스로 학습량	시기	16.716	.000	2.769	.250
	시기×시행 학기	0.869	.419		
사교육 학습량	시기	1.189	.305	30.657	.000
	시기×시행 학기	1.811	.164		
학업·진로 지도 만족도	시기	34.381	.000	33.320	.000
	시기×시행 학기	0.969	.380		
상호협조성	시기	18.601	.000	48.387	.000
	시기×시행 학기	3.313	.037		
학교생활 만족	시기	3.070	.047	25.793	.000
	시기×시행 학기	0.021	.979		
학업가치	시기	3.313	.037	31.628	.000
	시기×시행 학기	0.228	.796		
행복도	시기	0.620	.538	42.484	.000
	시기×시행 학기	1.239	.290		
진로포부	시기	3.402	.034	46.811	.000
	시기×시행 학기	1.249	.287		
자기이해	시기	14.120	.000	25.036	.000
	시기×시행 학기	2.659	.070		
정보 탐색	시기	28.322	.000	25.951	.000
	시기×시행 학기	2.547	.079		
직업에 대한 태도	시기	4.327	.013	38.907	.000
	시기×시행 학기	0.507	.603		
진로계획성	시기	8.829	.000	37.645	.000
	시기×시행 학기	5.491	.004		
합리적 의사 결정	시기	21.660	.000	58.786	.000
	시기×시행 학기	1.506	.222		

스스로 학습량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학업역량, 상호협조성, 진로계획성은 시기×시행 학기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시기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자유학기제 시행 학기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역량, 상호협조성, 진로계획성의 추정 평균값은 다음 그림과 같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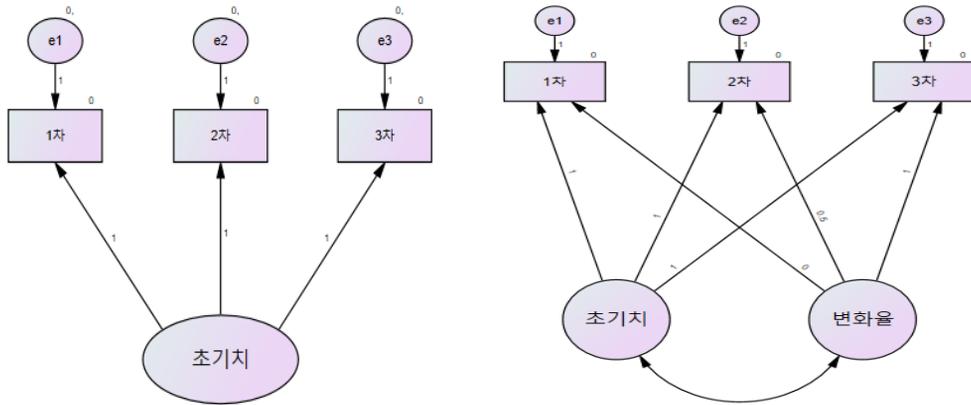


[그림 2-1] 학업역량, 상호협조성, 진로계획성의 추정 평균

#### 4) 잠재성장모형

다음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행 및 진로체험 활동이 점수의 변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각 변수별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3) 기타 변수들의 추정 평균값은 부록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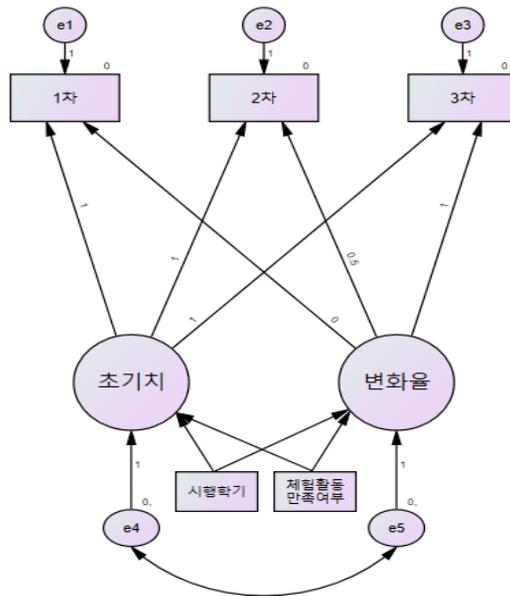
[그림 2-2]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모형별 적합도 검정 결과, 진로포부, 자기이해, 직업에 대한 태도 변수를 제외하고 무변화모형보다 선형변화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에서 초기치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치에 개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학습량을 제외하면 변화율에도 개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9〉 모형별 적합도

구분	$\chi^2$	df	p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학업 역량	무변화모형	33.329	4	.000	.979	.971	.071	3.527***		0.502***	
	선형변화모형	27.095	3	.000	.977	.977	.074	3.493***	0.076**	0.486***	0.130*
교육 포부	무변화모형	22.430	4	.000	.977	.969	.056	2.838***		0.439***	
	선형변화모형	3.297	3	.348	1.000	1.000	.008	2.899***	-0.118***	0.520***	0.177*
스스로 학습량	무변화모형	36.963	4	.000	.972	.963	.075	3.148***		0.692***	
	선형변화모형	0.199	3	.978	1.003	1.000	.000	3.057***	0.190***	0.654***	0.134
사교육 학습량	무변화모형	19.876	4	.001	.994	.993	.052	3.348***		1.608***	
	선형변화모형	3.664	3	.300	1.000	1.000	.012	3.323***	0.046	1.667***	0.411***
학업· 진로 지도 만족도	무변화모형	114.642	4	.000	.901	.868	.137	3.786***		0.269***	
	선형변화모형	12.719	3	.005	.988	.988	.047	3.702***	0.175***	0.258***	0.197***
상호 협조성	무변화모형	58.700	4	.000	.962	.949	.097	4.178***		0.211***	
	선형변화모형	9.049	3	.029	.994	.994	.037	4.127***	0.105***	0.240***	0.138***
학교 생활 만족	무변화모형	22.377	4	.000	.987	.983	.056	4.104***		0.268***	
	선형변화모형	12.139	3	.007	.991	.991	.046	4.097***	0.012	0.276***	0.124***
학업 가치	무변화모형	40.447	4	.000	.971	.961	.079	4.021***		0.268***	
	선형변화모형	16.566	3	.001	.986	.986	.056	4.045***	-0.054*	0.261***	0.157***
행복도	무변화모형	28.140	4	.000	.984	.979	.064	3.764***		0.161***	
	선형변화모형	19.076	3	.000	.986	.986	.060	3.765***	-0.006	0.148***	0.081***
진로 포부	무변화모형	14.079	4	.007	.995	.993	.041	3.725***		0.294***	
	선형변화모형	22.577	3	.000	.987	.987	.067	3.719***	0.006	0.287***	0.126***
자기 이해	무변화모형	33.026	4	.000	.982	.977	.070	4.080***		0.233***	
	선형변화모형	32.495	3	.000	.976	.976	.082	4.090***	-0.031	0.234***	0.081***
정보 탐색	무변화모형	61.569	4	.000	.960	.947	.099	3.804***		0.288***	
	선형변화모형	42.239	3	.000	.964	.964	.094	3.758***	0.086***	0.289***	0.112***
직업에 대한 태도	무변화모형	14.915	4	.005	.987	.983	.043	4.412***		0.149***	
	선형변화모형	12.409	3	.006	.985	.985	.046	4.393***	0.034	0.174***	0.136***
진로 계획성	무변화모형	24.156	4	.000	.988	.984	.059	4.010***		0.247***	
	선형변화모형	14.544	3	.002	.991	.991	.051	3.980***	0.060***	0.256***	0.108***
합리적 의사 결정	무변화모형	57.053	4	.000	.967	.956	.095	4.048***		0.244***	
	선형변화모형	30.332	3	.000	.977	.977	.079	4.005***	0.081***	0.262***	0.152***

다음으로 자유학기제 시행학기, 체험활동 만족여부가 변화 패턴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로 다음 공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자유학기제 시행학기, 체험활동 만족여부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림 2-3] 공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학기에 따라 사교육 학습량의 초기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역량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스러운 체험활동 참여여부에 따라서는 학업역량의 변화율과 스스로 학습량의 초기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스러운 체험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학업·진로지도 만족도, 상호협조성, 학교생활만족, 학업가치, 행복도, 정보 탐색, 진로계획성, 합리적 의사 결정의 변화 패턴(초기 상태와 변화율)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0〉 자유학기제 시행학기, 체험활동 만족여부의 영향 분석

구분	$\chi^2$	df	p	TLI	CFI	RMSEA	시행학기		체험활동 만족여부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학업역량	46.169	6	.000	.939	.963	.068	0.047	-0.106*	0.227	0.167**
교육포부	16.942	6	.010	.970	.982	.035	-0.018	-0.084	0.109	-0.041
스스로 학습량	14.027	6	.027	.985	.991	.031	-0.086	0.076	0.143*	0.073
사교육 학습량	21.644	6	.001	.988	.993	.042	-0.159*	0.003	0.067	-0.046
학업·진로 지도 만족도	28.175	6	.000	.967	.980	.050	.029	.013	0.323***	0.409***
상호협조성	26.110	6	.000	.974	.985	.048	-0.016	0.050	0.302***	0.222***
학교생활만족	26.351	6	.000	.974	.985	.048	0.057	-0.024	0.353***	0.266***
학업가치	30.504	6	.000	.966	.980	.053	0.000	-0.012	0.394***	0.298***
행복도	35.108	6	.000	.964	.979	.057	0.024	-0.012	0.248***	0.184***
정보 탐색	63.370	6	.000	.925	.955	.081	0.035	-0.021	0.270***	0.278***
진로계획성	38.827	6	.000	.962	.977	.061	0.019	0.008	0.270***	0.205***
합리적 의사결정	48.910	6	.000	.949	.969	.070	-0.005	0.023	0.334***	0.170***

※ 주: 진로포부, 자기이해, 직업에 대한 태도 3개 변수는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모형에 비해 감소하여 제외하였음.

### Ⅲ. 정책 제언

#### ■ 제안 1) 자유학기·학년제 시행 시기별로 학생 발달의 주안점 차별화

각 학교에서 자유학년제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발달의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기별 학생 발달의 주안점을 달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자 하던 초기에는 중학교 과정 내에서 몇 학년 몇 학기에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정된 자원을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도 집행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나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학년, 학기에 적합하고 유효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변화무쌍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의 개입 효과와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1학과 2학기 각각의 시행 시기에 따라 학생 발달의 분야, 속도,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에 따라 학업역량, 상호협조성, 진로계획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각 학년, 학기별로 차별화된 학생 발달 지원을 위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 학년별로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단계에 맞추어 조화롭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학교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제안 2) 학교 적응, 개인별 진로계획 수립 후, 학업으로의 순차적 접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는다면,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이 받아 적는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능동적 수업으로의 전환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능동적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 중 진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진로체험이 교육과정에 다수 포함되면서 가만히 앉아 듣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 사회를 몸소 체험하여 익히는 경험학습의 요소가 강화되었다. 또,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과정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이 전환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중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본 연구와 같이 학생의 발달 단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별 발달 분야가 다르므로 ‘학업성취도’라는 성과 도출을 위해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학교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진로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율, 수립한 후, 이를 학업과 연계하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순차적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역량, 상호협조성, 진로계획성은 모두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발달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에서 상호협조성이 더 크게 발달하는 반면 학업역량은 2학기 시행 학교에서 더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은 중학교로의 전환과 학교 적응시기를 겪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상호협조 활동을 많이 포함한 토론식, 문제해결식 수업이 학생 발달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은 진로계획성의 발달과 더불어 학업 역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는 상호협조를 기반으로 한 학업 준비 중심의 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점차 진로계획성을 길러,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는 순차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 ■ 제안 3)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를 통한 스스로 학습의 정착

2017년 자유학기제 시행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점으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스스로 학습량’이다. 학교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통해서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7년에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은 학생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나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량이 증가하는 패턴이 눈에 띈다.

그리고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는 2학기 시행 학교에 비해 스스로 학습량이 적었

고,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스스로 학습량이 적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완료되는 시점인 2학기 말에서는 스스로 학습량이 2학기 시행 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학습량은 2학기 시행 학교의 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1학기 시행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직후 사교육 학습량이 늘어났다가 스스로 학습량이 늘어나는 2학기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자유학기제 이후 일시적으로 사교육 참여량이 늘어나지만, 일정 시일이 지나서는 스스로 학습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행복감을 비롯한 진로성숙 하위 분야의 발달이 1학기에 촉진되어 점진적으로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쳐 사교육량은 감소하고 자기주도 학습량은 늘어났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스스로 학습량이 비록 학생의 학업 성과와 정비례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중학교 초기에 다져진 학습태도는 대학진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전반을 아울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까지 학습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 제도가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제안 4) 만족스러운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 변화·발달 촉진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진로체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 진로체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진로체험처를 양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진로체험처가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체험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체험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등 체험의 질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진로체험이 진로발달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방법이겠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모든 체험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 간 진로체험이 늘어나면서 체험 프로그램의 질 제고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운영되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은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한 기준을 상정하고 있을 뿐,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체험 활동의 만족 여부는 진로성숙의 하위 영역인 정보탐색, 진로계획성, 합리적 의사결정 등 진로성숙의 하위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진로체험 참여만으로는 애초에 의도한 진로체험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로체험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진로체험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학급 단위의 대규모 진로체험을 소규모로 실시하여 학생과 진로체험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가만히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진로체험 지원 인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주휘정 외, 2017).

### ■ 제안 5)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한 통합적 접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교육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혹은 학기제의 유형은 자유학기선행형, 자유학기통합형, 자유학기후행형의 유형이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된 바 있다(커리어넷, 2017b).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유학기 시행 여부의 특정 시점이 아닌 중학생의 발달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특정 시기와 학기에 각기 서로 다른 발달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학년이라는 특정 학년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시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 중학교 학생 발달이 모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포부, 학교생활만족도, 학습가치, 진로포부는 1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나마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에서는 이러한 감소 패턴이 1학기 시행 학교 학생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 시행으로 학생들의 한껏 높아진 포부가 1학년을 보내면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러한 지표가 낮아지거나 학생의 삶이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진로계획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다음 학년에서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IV.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2017년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의 학생 발달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2018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계획을 수립·운영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유학기제가 하나의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대입 과정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를 길러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시기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의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2017년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 약 1,500명의 자유학기제 참여가 미친 학생 발달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등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별로 각기 다른 학생 발달 사항이 있고, 각 개인별 편차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수요자 중심의 중등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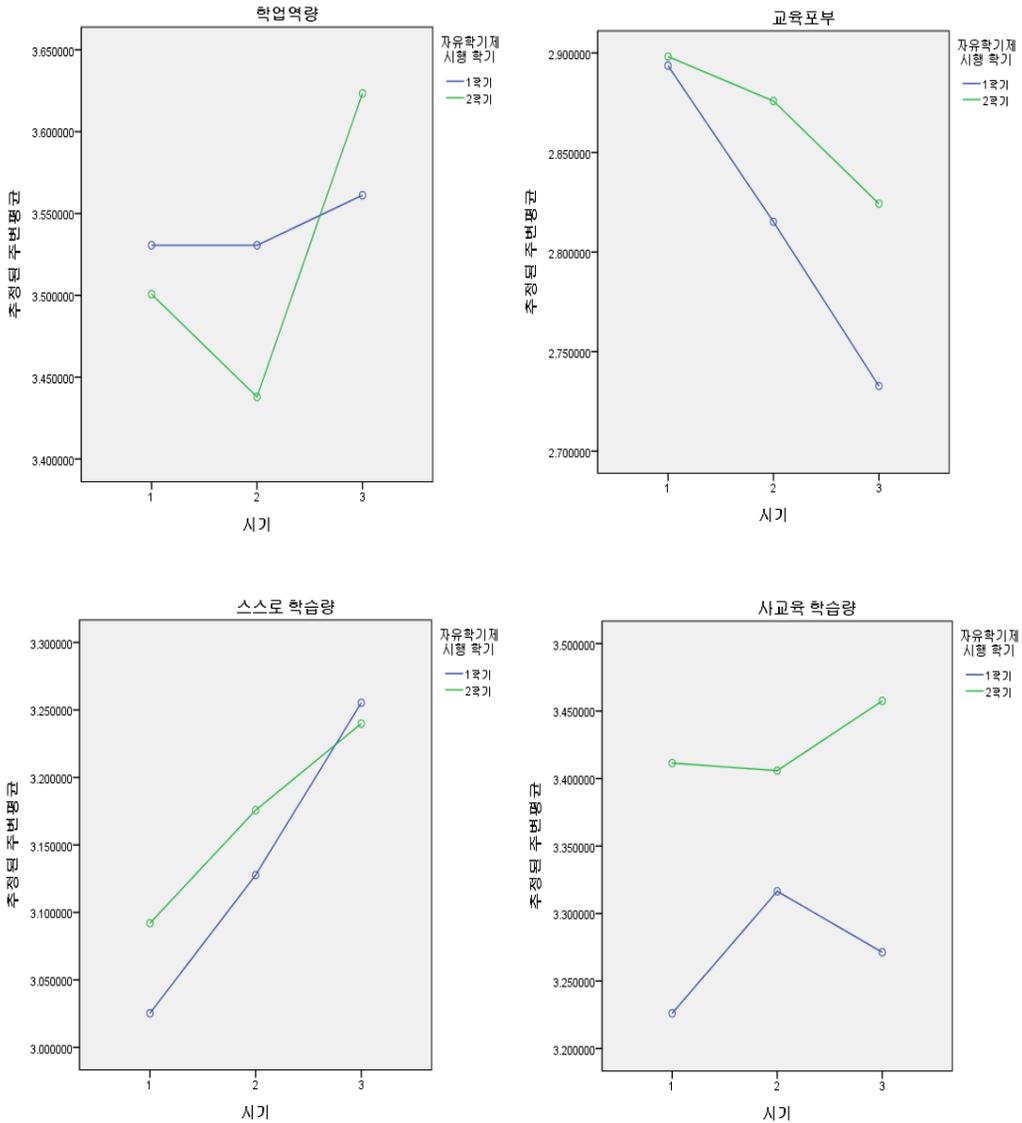
셋째,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의 전달 방법의 하나로 진로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막연히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로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학생이 만족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일부 밝히고 있는 바,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공자, 참여자, 그리고 교사 및 기관 관계자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내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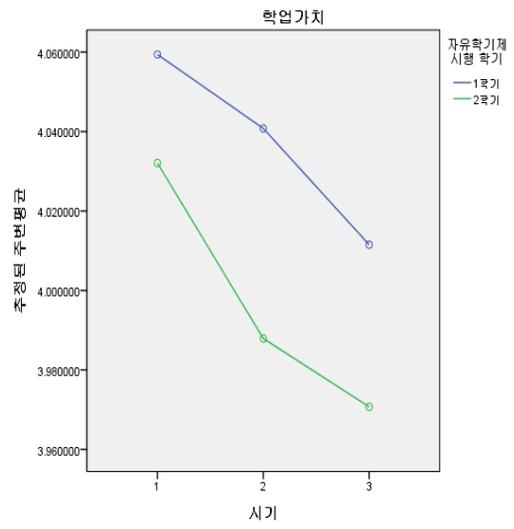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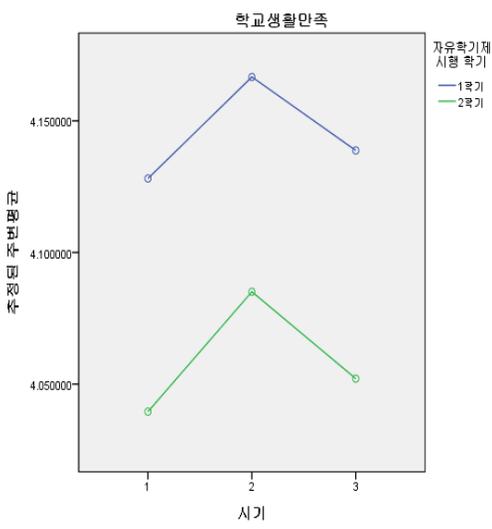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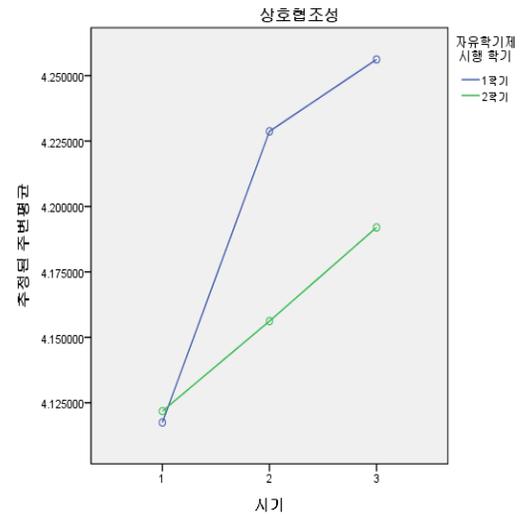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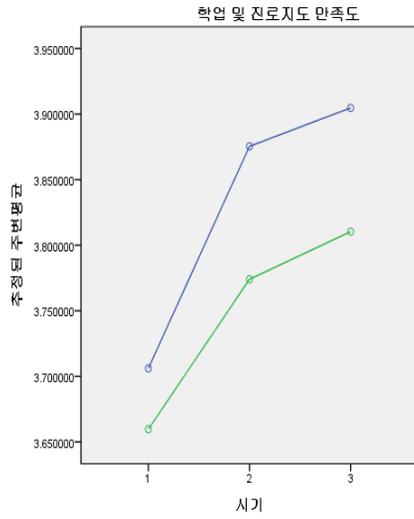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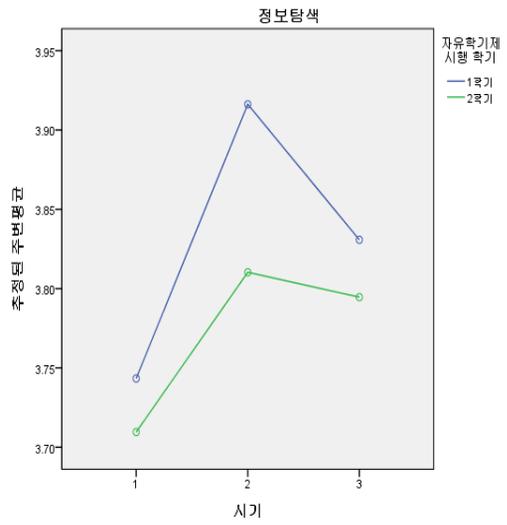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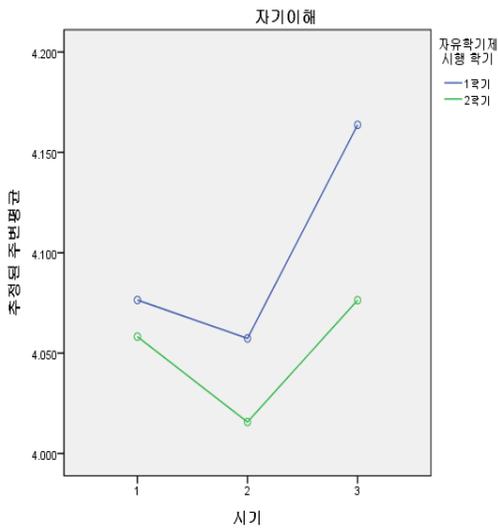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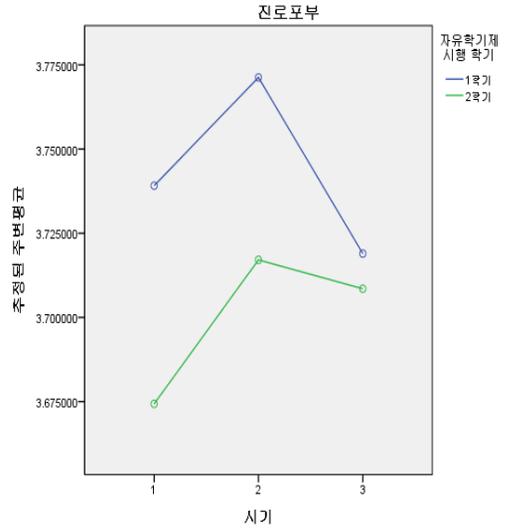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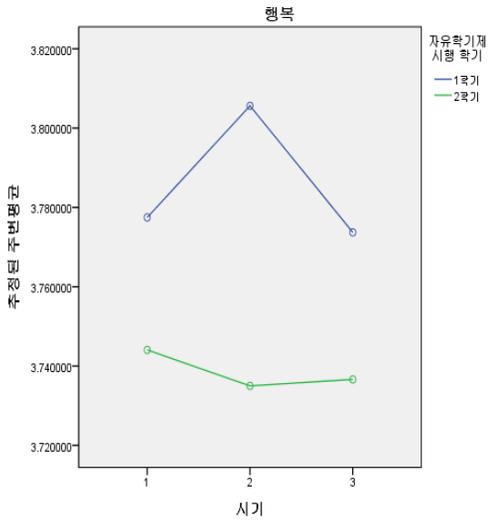
-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진로교육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l=&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7%84%EB%A1%9C%EA%B5%90%EC%9C%A1%EB%B2%95#undefined>. 2017. 11. 19. 접속.
- 김경주(2010).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기현·유홍준·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제33권 제3호, 19-36.
- 김영식·이기정(2016).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향점 수매칭과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접근」, 「교육과학연구」, 제47권 제4호, 125-143.
- 꿈길(2017). 자유학기제 소개. [http://www.ggoomggi.go.kr/page/new/notice/introduce/page\\_new\\_introduce](http://www.ggoomggi.go.kr/page/new/notice/introduce/page_new_introduce). 2017. 11. 19. 접속.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호, 383-398.
- 임언·정윤경·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휘정·김영식·양정승(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커리어넷(2017a).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cnet/front/examen/inspctMain.do?gubun=7>. 2017. 11. 15. 접속.
- 커리어넷(2017b).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http://www.career.go.kr/cnet/front/web/fgrade/fgradeInfo.do>. 2017. 12. 20. 접속.
- 한국방정환재단(2016). 『제8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한국방정환재단.
- OECD(2010). Learning for jobs. Paris: OECD.
- Schoon, I. & Polek, E. (2011). Teenage career aspirations and adult career attainment: the role of gender, social background and general cognitive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3), 210-217.
- Staff, J., Harris, A., Sabates, R. & Briddell, L. (2010). Uncertainty in early occupational aspirations: Role exploration or aimlessness?, *Social Forces*, 89(2), 659-683.
- Yates, S., Harris, A., Sabates, R., & Staff, J. (2011). Early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fractured transitions: a study of entry into 'NEET' status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40(3), 513-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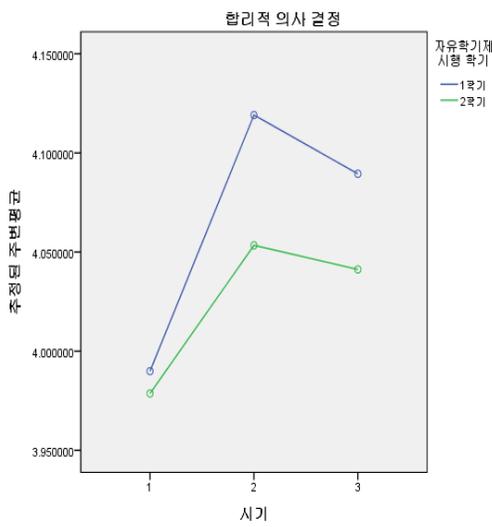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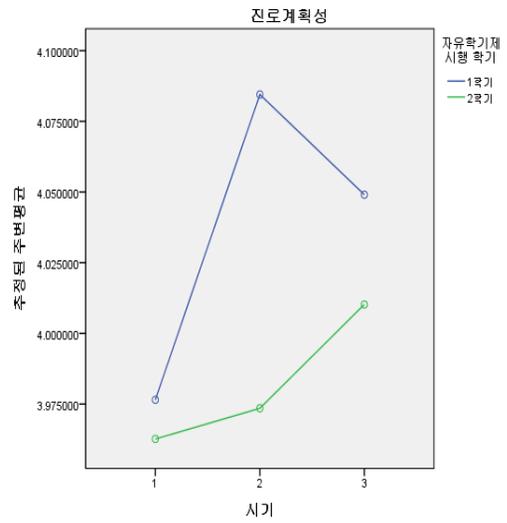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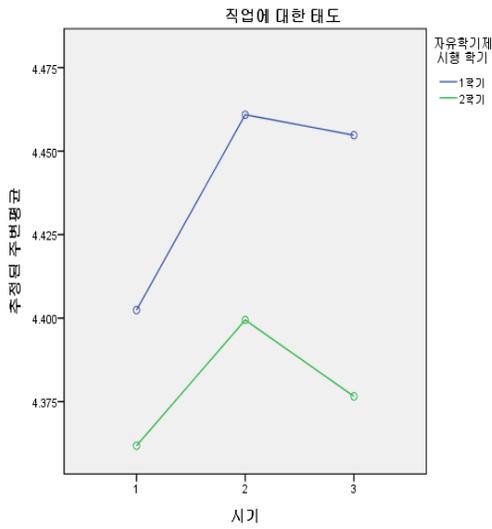
## [부록]

[부록 1]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도표











## □ 저자 약력

- 주최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 발행연월일 2017년 12월 28일 인쇄  
2017년 12월 31일 발행
- 발행인 나 영 선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339-5298-4 93370
- 인쇄처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

값 4,000원



9 791133 952984  
ISBN 979-11-339-5298-4